

죽도문제연구회의 왜곡-1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 편

2014년 4월 시마네현의 죽도문제연구회가 <죽도문제 100문100답>이라는 책을 발행했다. 그 내용이 너무나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 책자의 본질적 왜곡 내용을 이 시리즈로 밝히기로 한다. 결론적으로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죽도문제연구회와 시마네현의 논리는 모두 왜곡된 허위에 불과하다. 여기서는 먼저 100문 100답 중 73번 째 내용에 대해 비판하고자 한다.

Q73. 한국문헌과 고지도에 기재된 우산도는 독도인가?(죽도문제 연구회의 73번 째 제목)-->결론 : 한국 문헌과 고지도에 기재된 우산도는 바로 독도다.

[해설과 비판]

이 글은, 죽도문제연구회 좌장이자 타쿠쇼쿠 대학교 교수인 시모조 마사오가 쓴 글이다. 그는 1770년에 편찬된 『동국문헌비고』에 기재된 내용, 즉 '우산은 왜가 말하는 송도(=독도)다'라는 문장을 한국 측이 무비판적으로 수용해 독도가 한

국영토라는 증거로 삼았다고 주장한다.

1. 시모조 교수는 1696년 안용복이 오키섬과 돗토리번에 밀항해 돗토리번에 의해 '추방되었다'고 하지만 그 주장은 허위다. 돗토리번에서 안용복은 조선의 고위관리의 옷을 입고 고위관리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좋은 대접을 받았고 조선으로 귀국할 때도 스스로 귀환한 것이다. 그 증거로 그는 조일간의 정식 경로인 대마도 경유 루트를 통하지 않고 동해를 횡단해 돗토리에서 조선의 동해안 양양으로 직접 돌아갔다.
2. 또한 시모조 교수는 '[안용복이 비변사에서] 돗토리번과 교섭하여 영주가 <울릉도와 우산도는 이제 조선령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등 거짓증언을 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오키섬에서 1696년 안용복이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는 강원도에 속한다'라는 증언을 한 일본 측 증거물 '원록9병자년 조선배 착안(着岸) 1권의 각서'가 2005년에 발견되었기 때문에 안용복이 거짓증언을 했다는 시모조 교수의 주장이 전혀 성립되지 않는다.
3. 시모조 교수는 1696년 5월경 안용복이 울릉도에서 일본어민들과 조우해 '송도(=독도)는 우산도다. 이것도 조선땅이다'라고 하여 일본어민들을 쫓아냈다는 안용복의 진술내용을 가리키며, 1696년 1월에 이미 에도막부가 '울릉도도해금지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 후인 5월에 일본어민들이 울릉도에 갔을 리가 없으므로 울릉도에서 일본어민들과 조우했다는 안용복의 진술

은 거짓증언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에도막부가 '울릉도도해금지령'을 내린 시점은 1696년 1월이다. 그러나 돛토리번 자체에 울릉도도해금지령이 전달된 것은 1696년 8월이므로 5월경에는 돛토리번 어민들은 아직 도해금지령이 내려진 사실을 몰랐다. 그러므로 돛토리번 어민들이 울릉도로 건너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음이 역사적 사실이다.

4. 시모조 교수는 '안용복의 교섭으로 울릉도와 우산도가 조선령이 되었다는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1696년 1월25일 돛토리번은 에도막부에 대한 답변서에 '송도(=독도)는 호키수(=돛토리번의 호키주 태수)가 지배하는 곳이 아닙니다. 죽도(=울릉도)로 가기 전에 기항하는 곳입니다', '다른 어떤 나라(=일본의 각 지방)도 송도(=독도)를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등으로 답변해 독도가 조선령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에도막부에 전달했다.

이런 결과들은 안용복이 일본에 납치된 1693년의 사건이 원인이 되어 일어났기 때문에 결국 조선에서는 울릉도와 독도를 지킨 안용복의 공로를 인정해 『숙종실록』에 정식으로 기록한 것이다. 결국 안용복사건이 계기가 되어 울릉도를 둘러싼 '울릉도쟁계'가 일어나 결과적으로 일본 에도막부는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부속으로 인정한 것이다.

5. 시모조 교수는 안용복의 증언으로 우산도가 송도(=독도)라는 인식이 한국에 생겼다고 주장한다. 그런 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해도 우산도가 실질적으로 송도(=독도)이므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시모조 교수의 인식, 즉 안용복의 말은 모두 거짓말이라는 인식자체가 그릇된 인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6. 그리고 시모조 교수는 1711년 울릉도를 답사한 박석창이 그린 '울릉도도형'에 울릉도에서 동쪽 2km거리에 있는 죽서도에 '소위우산도'라고 기재했다고 지적한다. 즉 그는 울릉도의 죽서도를 우산도라고 보는 조선의 인식이, 후에 우산도는 송도(=독도)라는 잘못된 인식을 낳았다고 하여 안용복의 증언과 죽서도를 우산도라고 보는 조선 측 인식 두 가지가 조선인을 하여금 '우산도는 왜가 말하는 송도(=독도)'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연결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런 시모조 교수의 주장도 억지에 불과하다. 1711년의 박석창이 '울릉도도형'에 그린 우산도는 '소위우산도'라고 기재되어 있어 실제로 우산도인지 모른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그 섬이 정확히 현재의 죽서도라고 할 수 있는 증거도 없다. '소위우산도'에는 죽전(竹田)이 있다고 나와 있어 독도에는 대나무가 없으므로 '소위우산도'는 죽서도일 수밖에 없다는 일본 측 주장도 있으나 1877년 <공문록>에 수록된 '일본해 내 죽도 외일도 지적편찬방사'(소위 '태정관 지령문') 속에서 송도(=독도)를 설명하는 문장에는 '나무나 대나무가 드물다'라고 기록되어 있

어 ‘드물지만 독도에는 대나무가 있다’라는 사실을 정확히 지적했다. 그러므로 애매모호한 지도를 가리켜 시모조 교수는 죽서도가 조선이 말하는 우산도이고 한국에서는 그 섬을 송도(=독도)로 착각했다는 식의 극단적 결론을 내렸을 뿐이다.

7. 시모조 교수는 안용복이 먼저 우산도를 울릉도의 동북방면에 있는 섬이라고 알고 있었고 1693년 일본으로 납치되었을 때 일본으로 가는 도중에서 ‘큰 섬을 봤다’고 진술해 그 큰 섬을 우산도라고 착각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 송도(=독도)는 울릉도의 동남방향에 있고 작은 섬이기 때문에 안용복이 본 섬은 송도(=독도)가 아니라고 말을 이어간다. 그런데 그는 안용복이 본 섬이 무엇인가라는 점을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 여기에 시모조류의 왜곡이 숨어있다. 사실 울릉도와 뚝토리번 사이에 있는 큰 섬이란 오키섬 밖에 없다. 그러므로 시모조 교수는 이전에 안용복이 오키섬을 보고 송도, 즉 우산도로 생각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일본 측 기록인 ‘원록9병자년 조선 배 착안 1권의 각서’ 속에는 다음과 같이 안용복이 송도(=독도)와 오키섬을 정확히 구별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인용문 : 5월 15일 ‘죽도(=울릉도)’를 출선하여 같은 날 ‘송도(=독도)’에 도착했고, 같은 달 16일 ‘송도(=독도)’를 출발하여 18일 아침에 오키섬의 ‘니시무라(西村)’ 바닷가에 도착, 같은 달 20일에 ‘오히사무라(太久村)’에 입항했다고 합니다.

위의 내용은 안용복이 1696년 5월15일 울릉도를 출발하고 그 날에 독도에 도착했고 5월16일 독도를 출발하여서 5월18일 아침에 오키섬에 도착했다는 안용복의 진술을 오키섬 관리가 기록한 내용이다. 당시 울릉도에서 독도까지는 대략 하루 걸렸고 독도에서 오키섬까지는 대략 이틀 걸렸다는 거리(<은주시청합기, 1667>등에 나타나 있음)와 안용복의 진술은 거의 일치한다. 그러므로 안용복이 송도를 오키섬으로 생각했다는 시모조 교수의 의견은 완전한 틀렸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면서 안용복의 진술이 '허위'라는 시모조 교수류의 문헌 은폐와 날조를 범하고 있다.

8. 시모조 교수는 또 안용복이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팔도총도' 계통의 지도인 '팔도지도'를 오키섬에서 제시하여 우산도는 일본의 송도(=독도)라고 주장했지만 '팔도총도'에는 우산도가 울릉도의 3/4 정도의 크기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자신이 본 큰 섬을 우산도로 믿어버렸다 등 의미불명의 주장을 하고 있다. 안용복이 지도를 지참했다고 '원록9병자년 조선배 착안 1권의 각서'에 기록되어 있으나 그것이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팔도총도' 계통의 지도라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다. 그것도 시모조 교수류 왜곡과 날조로 판단된다.

<결론> 100문100답 중 73번째 문답에 쓰인 시모조 교수의 주장은 하나도 성립되는 것이 없고 역사적 사실을 가리는 왜곡이 가득 하다.